

OECD, 중장기 농산물 수급전망

OECD는 2004년 7월 ‘OECD 농업전망 2004~2013’ 연차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EU 확대와 2003년 공동농업정책 개혁, 그리고 2002 미국 농업법 개정 등 세계 주요정책 변화에 따른 주요 농산물 시장의 중장기 파급영향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파급영향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요약

OECD 회원국과 비 회원국의 소득 증가, 인구 성장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에 기인하여 전세계 1인당 소득 및 소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비 회원국 소비는 버터, 치즈 전지분유 등 낙농제품과 축산물을 중심으로 OECD 회원국 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지역은 높은 소득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금육, 치즈, 전지분유 등 축산물과 유제품을 중심으로 소비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같은 기간 높은 성장세가 전망되는 비 회원국의 경우 생산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가축 생산활동의 증가로 OECD 지역 밖에서 사료소비는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생산(밀, 쌀, 잡곡, 쇠고기, 치즈 및 식물성 유지 등)은 소비 보다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생산증대의 대부분은 면적확대와 지역의 경종작물

을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경향은 비 회원국을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OECD 지역 외 국가의 생산 확대폭은 OECD 국가 보다 능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결과 세계 생산에서 OECD의 비중은 버터, 탈지분유의 경우 대폭 감소, 돼지고기 및 전지분유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타 다른 생산물에 대해서도 감소 경향을 보일 전망이다.

밀과 잡곡에 대한 세계무역은 쌀 무역 증가와 맞물려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설탕 무역의 경우 브라질과 같은 수출 주도국을 중심으로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ECD 국가 주도의 낙농제품 무역은 세계 원유생산에서 낮은 비율이 지속되거나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생산 주도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OECD 국가에서 비 회원국으로의 낙농제품 순 수출은 전지분유를 제외하고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 육류 수입은 가금육을 중심으로 큰 비중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전망 기간 동안 대부분 축산물 가격은 명목으로 상승세가 전망되었으나 실질로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양한 국내외 무역정책은 국내외 시장가격 변화와 통합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일부 품목에 반영되어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간의 큰 차이를 유지하면서 소비자에게 고 비용을 전가하고 국내시장의 충격을 완화시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농산물 시장의 방향과 전망

2.1. 소비 전망

최근까지 소득과 인구의 증가는 전세계 소비 확대를 가져왔으며 식생활 패턴 변화와 다양화는 낙농제품과 축산물 등 고부가가치 생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를 야기하였다. 2003~13년 전망에 따르면 전 지역에 걸쳐 모든 식용 생산물 소비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특히 식물성 유지는 연평균 2.9%의 가장 높은 성장률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버터, 치즈, 전지분유, 가공육 소비 역시 연간 약 2% 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표 1>.

특히 쌀과 탈지분유를 제외한 모든 생산물 소비는 인구성장률 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식생활 패턴의 다양화는 축산 및 우유 생산에 사용되는 유지박과 잡곡의 소비 성장률 증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유지박 소비는 연평균 2.6% 성장을 예상되었으며, 식용 보다 가축 사료로 사용되어지는 잡곡은 연간 1.5% 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1. 비 회원국 중심의 소비 증가

소비증대의 대부분은 비 회원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지역 인구 증가 및 소득성장 또한 지속될 전망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 OECD 지역의 소비는 OECD 지역보다 더욱 빠른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같은 축산물은 물론 버터, 치즈 그리고 전지분유 등 낙농제품의 소비는 상당히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구 역시 같은 패턴을 보일 전망이며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유지종자 박과 잡곡 등 간접 소비 생산물 또한 강한 소비 증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1 소비 및 생산 연평균 증가율, 2003-2013

단위: %

구 분	소 비			생 산		
	Total	OECD	비 OECD	Total	OECD	비 OECD
밀	1.2	0.8	1.4	1.8	1.5	2
쌀	0.8	0.8	0.8	1.3	1.1	1.3
잡 곡	1.3	0.8	1.8	1.6	1.4	1.8
사료용 잡곡	1.5	1.0	2.1	NA	NA	NA
유지종자	NA	NA	NA	2.7	2.5	2.8
유지종자박	2.6	1.6	3.8	2.6	2.2	2.9
쇠 고 기	1.5	0.4	3.0	1.6	0.6	2.8
돼지고기	1.5	0.8	2.0	1.5	0.8	2.0
가 금 육	2.0	1.7	2.5	1.9	1.7	2.1
버 터	2.3	0.4	3.3	2.2	0	3.8
치 즈	2.0	1.7	2.8	2.0	1.6	3.4
탈지분유	1.0	0	2.3	0.7	-0.7	5.6
전지분유	2.6	1.7	2.8	2.6	1.9	3.4
식물성 기름	2.9	1.7	3.8	3.0	2.0	2.9
설탕	1.8	0.5	2.2	1.7	0.5	2.2

자료: OECD Agricultural Outlook 2004-2013, July 2004.

OECD 지역의 높은 소득과 만족수준 이상의 기본 칼로리 공급은 소비자 식단의 다양화와 새로운 맛과 편리를 더욱 추구하게 하여 외식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소비 증대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탈지분유의 경우 2013년경 소비는 2003년 수요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크게 확대되지 않을 전망이다. 쇠고기와 버터 소비가 증가할 지라도 가금육, 치즈, 전지분유와 같은 생산물로 선호가 이동되기 때문에 미미한 동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전망기간 동안 비 OECD 지역의 소비성장률이 높은 것은 농산물 생산증가율만큼 OECD 지역 외에서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OECD 지역의 탈지유(skim milk) 소비하락에 기인하여 전세계 탈지분유 소비 중 OECD 비중은 2003년 60%에서 2013년에는 55%까지 하락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예로 쇠고기, 버터 그리고 돼지고기의 경우도 소비 비중 감소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OECD 쇠고기 소비는 2003년 61%에서 2013년 54%로 감소, 버터 37%에서 31%로 6%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돼지고기는 42%에서 39%로 약간 감소할 전망이다. 비 OECD 지역의 비육 사료용 생산물 소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비 OECD 국가 중심으로 가축생산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 의 세계 잡곡 소비 비중은 2003년 55%에서 2013년 52%로 감소, 유지종자박은 58%에서 52%로 감소할 전망이다.

2.2. 생산 전망

2.2.1. 생산은 더욱 빠르게 확대

평년기후 조건과 생산성 향상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대부분 농산물의 생산 성장률은 소비 성장률 보다 더욱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실질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2.2. 비 OECD국가, OECD국가 생산 추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개 품목 중 6개 품목(밀, 쌀, 버터,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에서 비 OECD 지역의 생산 성장이 소비 성장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계 기준으로 살펴보면 버터와 가금육 그리고 탈지분유만이 생산보다 소비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체 생산물 기준으로 육류는 미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낙농제품과 설탕이 큰 폭으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ECD 지역의 국가의 생산확대는 OECD 국가를 앞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결과 OECD 가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세계 생산에서 OECD 의 비중은 탈지분유의 경우 약

12%p, 버터 9%p, 돼지고기, 쇠고기, 치즈 그리고 전지분유의 경우 3~5%p 하락할 전망이다.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미미한 하락이 예상되며 곡물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표 2>.

표 2 전세계 소비·생산 중 OECD 국가 비중

단위: %

구 분	소 비			생 산		
	2003년	2008년	2013년	2003년	2008년	2013년
밀	33.0	32.0	31.0	44.0	43.0	42.0
쌀	4.0	4.0	4.0	4.0	4.0	4.0
잡곡	51.0	50.0	48.0	54.0	54.0	53.0
사료용잡곡	55.0	54.0	52.0	NA	NA	NA
유지종자	NA	NA	NA	38.0	39.3	37.2
유지종자박	58.0	55.0	52.0	41.7	41.9	40.1
쇠고기	61.0	57.0	54.0	59.0	56.0	54.0
돼지고기	42.0	41.0	39.0	43.0	42.0	40.0
가금육	64.0	64.0	63.0	64.0	64.0	64.0
버터	37.0	34.0	31.0	46.0	41.0	37.0
치즈	77.0	77.0	75.0	79.0	78.0	76.0
탈지분유	60.0	58.0	55.0	83.0	77.0	71.0
전지분유	19.0	18.0	18.0	54.0	52.0	50.0
식물성 유지	36.0	33.0	32.0	29.0	29.0	26.0
설탕	27.8	26.0	24.5	27.8	26.0	24.5

자료: OECD Agricultural Outlook 2004-2013, July 2004.

세계 곡물 생산은 연간 1.6%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중 밀과 잡곡 생산은 각각 연평균 1.8%, 1.6% 증가할 것으로, 쌀 생산은 이보다 약간 작은 연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ECD 지역의 곡물생산 성장률은 비 회원국 지역 성장률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확면적 증가율은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산확대는 생산성 향상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밀 면적 연간 약 0.7%, 잡곡과 쌀 면적 연간 0.4% 이하 증가). 추가적 수확면적 증가는 대부분 OECD 이외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3 곡물 생산 및 증감률, 2003~2013

단위: 백만톤, %

품 목	지 역	98/99 -02/03	2003	2004	2005	2008	2010	2013	03/13 연평균 증감율
밀	OECD	243.6	240.8	253.5	250.4	263.8	269.4	279.3	1.49
	비OECD	333.3	310.5	329.1	338.4	352.8	363.2	378.3	1.99
	세계	576.9	551.2	582.6	588.8	616.6	632.6	657.6	1.78
잡 곡	OECD	470.5	469.6	490.8	498.4	520.1	530.6	541.1	1.43
	비OECD	390.8	405.4	419.0	428.7	450.0	463.5	484.6	1.80
	세계	861.2	875.0	909.7	927.1	970.1	994.1	1,025.7	1.60
쌀	OECD	23.5	21.1	23.0	22.9	23.0	23.2	23.6	1.13
	비OECD	372.8	372.2	386.4	393.9	406.0	414.4	424.5	1.32
	세계	396.3	393.2	409.4	416.8	429.0	437.6	448.1	1.32
유지 종자	OECD	105.2	92.7	111.8	111.8	113.0	114.6	118.3	2.47
	비OECD	123.4	151.4	157.5	159.4	174.5	185.5	199.8	2.81
	세계	228.6	244.2	269.2	271.2	287.5	300.0	318.1	2.68
유지 종자박	OECD	70.6	66.9	71.4	73.9	78.3	80.7	83.2	2.20
	비OECD	75.8	93.5	99.0	101.3	108.5	114.4	124.4	2.90
	세계	146.5	160.4	170.4	175.2	186.8	195.1	207.5	2.61
식물성 유지	OECD	22.7	21.3	22.6	23.2	24.3	25.0	25.8	1.94
	비OECD	44.7	51.4	53.9	55.3	60.7	65.1	71.9	3.41
	세계	67.4	72.7	76.5	78.5	85.0	90.1	97.7	3.00

자료: OECD Agricultural Outlook 2004-2013, July 2004.

세계 유지종자 생산은 2003~2013년 기간동안 연평균 2.7%의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곡물생산에 대한 성장률 보다 1.0%p 이상 높다. 이와 같은 생산 성장은 OECD 이외 지역의 생산성 증대와 면적 증가의 결과이며 유지종자 확대 면적은 OECD 지역에서 연간 0.4%, 비 OECD 지역에서 연간 1.5% 씩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지종자 및 유지종자 박 그리고 식물성 유지 등의 파생 생산물 생산 또한 비 회원국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증가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2.3. 낙농제품 및 육류 생산 확대

세계 원유생산은 아르헨티나와 중국의 대량 증산에 힘입어 1억 2,1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체 생산의 50%를 차지하는 OECD 국가는 쿼터제에 기인하여 전체 증산량의 2,500만 톤까지만 생산하고 있다. 대부분의 OECD 지역 증산량은 뉴질랜드와 호주를 중심으로 증량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 OECD 지역의 처리능력에 투자증가를 통해 생산성 증대와 원유생산 성장은 OECD 지역을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표 4 세계 원유 및 낙농제품 생산

단위: 백만톤, 천톤, %

품 목	지 역	2003	2004	2005	2008	2010	2013	03/13 연평균 증감율
원유	세 계	573.9	583.3	594.2	630.9	655.2	695.3	1.9
버터	OECD	3,708	3,701	3,611	3,640	3,675	3,702	0.0
	비OECD	4,422	4,607	4,795	5,338	5,733	6,409	3.8
	세계	8,130	8,308	8,406	8,977	9,407	10,111	2.2
치즈	OECD	13,925	14,217	14,469	15,228	15,662	16,302	1.6
	비OECD	3,598	3,727	3,841	4,245	4,538	5,036	3.4
	세계	17,523	17,945	18,310	19,473	20,200	21,338	2.0
탈지분유	OECD	3,005	2,895	2,855	2,825	2,818	2,803	-0.7
	비OECD	634	676	727	846	931	1,098	5.6
	세계	3,639	3,571	3,582	3,671	3,749	3,902	0.7
전지분유	OECD	1,901	1,914	1,998	2,115	2,181	2,291	1.9
	비OECD	1,657	1,740	1,799	1,971	2,108	2,326	3.4
	세계	3,558	3,654	3,798	4,087	4,288	4,617	2.6

자료: OECD Agricultural Outlook 2004-2013, July 2004.

따라서 OECD 이외 지역에서 낙농제품 생산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ECD 생산물 중 버터와 탈지분유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반면 비 회원국 경우 각각 연평균 3.8%, 5.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육류별 성장률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며 특히 쇠고기와 돼

지고기의 경우 비 회원국을 중심으로 상당히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낮은 물가상승과 안정적 사료가격 그리고 저가의 유지종자 박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잡곡 가격을 상쇄시켜 낮은 생산단가 환경을 제공하여 육류 생산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표 5 OECD 육류 생산전망

단위: 천톤

구 분	2003	2004	2005	2008	2010	2013	03/13 연평균
쇠고기	26,565	26,894	26,149	26,789	27,461	28,333	0.6
돼지고기	37,104	37,293	37,769	39,029	39,482	40,073	0.8
가금육	34,289	34,838	36,691	38,167	39,219	40,763	1.7
양고기	2,751	2,665	2,672	2,675	2,654	2,602	-0.6

자료: OECD Agricultural Outlook 2004-2013, July 2004.

3. 무역

3.1. 곡물 무역

3.1.1. 곡물 및 유지종자박 무역 확대 전망

세계 밀과 잡곡 무역은 최근들어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쌀 무역과 함께 2013년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ECD 지역의 총 밀 수출은 연간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잡곡의 경우 연간 3.3%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OECD 지역에서 중국 등 비 OECD 지역으로 대량 규모 무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비 회원국으로의 밀 수출은 연간 4.4%, 사료용으로 대부분 사용되는 잡곡의 경우 연간 10.1%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6 OECD 수출입 무역 전망

단위: 천톤, %

수 출	98-02 평균	2003	2004	2005	2008	2010	2013	03/13 연평균
밀	78,058	77,012	83,853	84,125	92,811	95,148	100,299	2.7
잡곡	80,847	70,373	80,676	80,219	89,724	94,329	97,265	3.3
쌀	4,240	3,838	4,341	4,466	4,415	4,463	4,487	1.6
설탕	11,653	11,521	11,797	11,765	11,982	12,228	12,591	0.9
쇠고기	4,995	4,330	4,046	4,993	5,276	5,754	6,106	3.5
돼지고기	3,074	3,441	3,582	3,770	4,027	4,184	4,306	2.3
가금육	3,759	3,598	3,799	3,863	4,164	4,367	4,645	2.6
양고기	..	415	313	327	313	299	250	-4.9
버터	..	822	900	860	861	836	832	0.1
치즈	..	1,167	1,115	1,168	1,294	1,345	1,413	1.9
탈지분유	..	1,013	1,015	1,024	1,006	1,036	1,015	0.0
전지분유	1,169	1,305	1,319	1,399	1,460	1,487	1,540	1.7
수 입	98-02 평균	2003p	2004	2005	2008	2010	2013	03/13 연평균
밀	24,615	29,066	25,484	25,858	26,037	26,288	26,725	-0.8
잡곡	53,786	52,784	51,035	50,145	51,501	52,481	51,241	-0.3
쌀	3,337	3,520	3,813	4,044	4,534	4,752	5,133	3.8
설탕	8,447	8,951	8,368	8,619	9,203	9,710	10,457	1.6
유지종자	..	5,166	-2,644	-1,955	2,167	4,060	3,705	-3.3
유지종자박	..	26,012	25,777	25,146	24,258	24,457	25,431	-0.2
식물성유지	..	4,882	4,387	4,266	4,111	4,358	4,932	0.1
쇠고기	4,088	4,086	3,858	4,809	4,849	5,112	5,287	2.6
돼지고기	2,064	2,400	2,414	2,545	2,814	3,032	3,155	2.8
가금육	1,486	1,794	1,918	2,011	2,244	2,417	2,617	3.8
버터	..	207	232	234	272	280	290	3.4
치즈	..	751	800	853	1,007	1,063	1,147	4.3
탈지분유	..	257	288	291	306	319	348	3.1
전지분유	82	79	79	76	70	66	60	-2.7

자료: OECD Agricultural Outlook 2004-2013, July 2004.

국가·지역별 전망에 따르면 유지종자박 무역은 연간 3.4%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성장의 대부분은 주요 수출국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 비 회원국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브라질의 경우 2013년에 600만 톤 이상의 수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03년 아르헨티나의 470만 톤 보다 많은 수준이다. 특히 미국은 전망기간동안 수출시장 점유율을 대부분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기간 주요 수입국 EU와 중국은 약 500만 톤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7 세계 유지종자박 무역 전망

단위: 천톤, %

국 가	98-02 평균	2003	2004	2005	2008	2010	2013	03/13 연평균
호주	수 입	0.3	0.3	0.2	0.3	0.3	0.3	1.9
캐나다	수 입	1.0	1.1	1.5	1.4	1.5	1.5	4.3
	수 출	1.7	1.6	1.6	1.5	1.6	1.6	-1.0
EU25	순무역	-23.4	-24.6	-25.0	-25.2	-25.5	-26.0	1.1
일본	수 입	1.2	1.1	1.2	1.1	1.1	1.2	0.0
한국	수 입	2.0	2.3	2.2	2.4	2.5	2.5	2.3
멕시코	수 입	0.5	0.6	0.8	1.2	1.4	1.7	13.8
미국	수 입	1.7	1.0	1.3	1.4	1.4	1.4	-1.8
	수 출	3.4	4.8	6.6	8.3	8.9	9.1	10.3
기타OECD	순무역	-1.1	-1.1	-1.2	-1.2	-1.3	-1.4	2.0
아르헨티나	수 출	21.1	22.1	22.2	23.2	24.2	25.7	2.0
브라질	순무역	13.3	14.7	15.4	16.4	17.5	19.9	4.1
중국	수 입	1.3	1.9	2.5	3.5	3.7	4.4	13.3
CIS	순무역	0.4	0.4	0.4	0.3	0.3	0.2	-5.7
세계 기타	순무역	-9.1	-11.4	-12.1	-14.0	-15.5	-17.6	6.8

자료: OECD Agricultural Outlook 2004-2013, July 2004.

3.1.2. 비 회원국 주도의 설탕무역

설탕무역은 주요 수출국이며 생산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브라질을 중심으로 50%까지 수출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태국과 호주 역시 각각 21%, 15% 까지 수출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 주로 미국 시장으로의 안정적인 수출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세계 설탕시장 수입 양상은 수출지역과 달리 지역적으로 집중도가 낮으며 세계최대 수입국 러시아로의 수입 지속이 예상되고 있으나 자국내 생산 확대로 일부 수입 물량을 대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2. 축산물 무역

3.2.1. OECD 국가, 높은 육류무역 비중 지속

쇠고기 수출은 연간 성장률 약 3.1%대에서 2013년까지 200만 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호주는 세계 주요 수출국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동시에 2004년 초반 이후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의 쇠고기 무역이 재기될 전망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쇠고기 수출은 2005년 초반부터 재기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총 수출량은 광우병 발생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돼지고기 무역은 2003년 보다 크게 증가하여 2013년에는 약 67.3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대 비회원국 수출량에 대한 변동이 크지 않아 무역의 대부분은 OECD 지역 내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EU는 OECD 지역 내에서 세계 최대 수출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전망 후반기에 들어 2위의 수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은 2013년까지 300만 톤에 가까운 막대한 가금육 수출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소비량도 50kg으로 OECD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금육 수출국인 브라질의 경우 내수확대로 수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주요 가금

육 수입국은 중국과 러시아이며 이중 러시아는 최대 순수입국 입지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2.2. 낙농시장의 축소, 미미한 무역성장세 지속

OECD 낙농제품 무역량은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적은 비중을 나타내거나 역내무역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교적 무역비중이 높은 일부 품목은 세계 소비량의 약 30% 이상을 수입하는 탈지분유나 35%의 전지분유 등이며, 이와 대조적으로 무역비중이 낮은 품목은 치즈(7%), 버터(8%) 등이 예상되고 있다. 치즈 수입은 전망기간 동안 연간 2.1%, 전지분유는 1.3%씩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탈지분유 수입은 연간 0.4% 성장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버터는 연간 약 0.4%씩 실질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낙농제품 무역은 OECD 국가에 의한 주도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OECD 국가에 의한 낙농제품 수출은 곧 전세계 수입의 90% 이상인 치즈, 버터, 전지분유 등의 수입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낙농제품 무역 대부분이 OECD 지역 내에서 이뤄지고 후발생산국의 강력한 생산 성장으로 비 OECD 지역으로의 수출은 전지분유를 제외한 모든 낙농제품에서 감소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3.3. 주요국의 무역구조 상황

3.3.1 EU, 밀 시장점유 회복

최근의 환율변동은 밀 수출국 경쟁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에서 미국의 밀 수출 비중은 2013년에는 약 27%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EU를 제외한 기타 수출경쟁국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로화의 고평가에도 불구하고 EU의 밀 수출은 계속 확대되어 세계 시장 점유율이 가뭄으로 낮았던 2003년 9%에서 2013년에는 2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잡곡의 경우 약간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은 2003년 59%에서 2013년에는 62%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EU를 제외한 기타 수출경쟁국의 시장점유율은 가뭄의 영향으로 극히 낮았던 2003년의 3%에서 2013년에는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3.2. 중국, 주요 곡물 수입국으로 전환

추가 무역량의 대부분은 중국의 곡물 수요에 대한 수입확대에 기인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 곡물시장에서 순수입국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 순수출국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과거 중국의 소득 수준 향상으로 유제품 및 육류 소비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축산부분에 대한 잡곡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대규모 수입이 예상되어 왔지만 자국내 재고 방출 등을 통해 중국 내 공급을 증대시켜왔다. 중국의 재고 수준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수입보다 재고방출을 통해 국내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으로 남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재고수준이 예상했던 것 보다 높을 경우 중국의 곡물 수입량은 감소하고 국내외 가격 또한 하락할 전망이다. 따라서 WTO 가입국으로써 곡물의 TRQ 이행 결과에 따라 곡물가격은 심한 변동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3.3. 브라질, 세계 최대 유지종자 수출국으로 성장

유지종자의 세계 수입수요(수출)는 연간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ECD 국가의 경우 단지 연간 0.7%의 소폭 성장세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부분 비 회원국을 중심으로 수입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비 회원국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수입수요는 증가될 전망이며 과거 세계 최대 유지종자 수출국인 미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3년 경 미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31%로 2003년 수준보다 낮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2013년 경 21%까지 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브라질은 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 최대 수출국의 입지를 차지할 전망이다.

3.3.4. 남미, 육류 무역대국 예상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세계 주요 쇠고기 수출국이다. 특히 브라질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수출이 확대되면서 2013년까지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내수용 생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출성장은 느린 속도로 나타날 전망이며 그 결과 세계 시장 점유율 역시 하락할 전망이다.

EU는 쇠고기 수출공동체에서 수입공동체로 전환 전망 결과에 의하면 EU가 1970년에 이후 30년간 지속된 역내 시장정책이 전환하게 되어 결국 쇠고기 수출공동체에서 순 수입공동체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비 회원국들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곡물시장에서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유지종자(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브라질은 설탕 및 쇠고기 시장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도 자국내 시장 개방확대로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4. 가격

4.1. 장기적으로 실질 농산물가격 하락 전망

명목기준으로 거의 모든 농산물 가격은 전망기간 동안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주요 품목별 명목가격을 물가요인을 고려하여 실질 가격으로 전환하면 대부분 품목의 실질가격이 최근 수준보다 하락한 반면 곡물, 쇠고기, 양고기 등 일부 품목의 경우만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2. 곡물 및 식물성 유지 가격 강세

곡물의 경우 공급은 수요보다 빠르게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명목 가격은 밀, 잡곡, 특히 쌀에 대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부분적으로 낮은 세계 재고 수준에 기인한 것으로 곡물 재고비율은 최근에 보지 못했던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세계 곡물 재고 감소의 주요 요인은 중국과 비 회원국 재고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곡물 가격과는 대조적으로 유지종자 가격은 급속히 하락한 이후 수요증가가 생산 증가로 이어져 명목가격으로 안정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전망기간 내내 유지종자 가격의 안정세는 유지종자박 가격 하락과 식물성 유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표 8 주요 품목별 세계 가격 전망

품 목	단위	98-02평균	03/04	05/06	08/09	10/11	13/14
밀	USD/t	126	152.7	154	156.4	154.8	152.9
잡 곡	USD/t	94	104.9	111.5	114.1	114.5	113.7
쌀	USD/t	218	203.8	252	286.3	298.8	316.3
유지종자	USD/t	218	316.8	245.6	254.9	249.9	254.1
유지종자박	USD/t	166	237.3	180.2	180.7	179.1	179.5
식물성 유지	USD/t	429	582.6	568.1	599	589	602.8
설탕	USD/t	177	149.9	200	150	185.1	176.4
쇠고기	EUR/100 kg	245	245.4	240.7	248.9	247.5	247.9
돼지고기	EUR/100 kg	127	124.9	129.5	133.4	130.3	134.9
가금육	USD/100 kg	129	136.5	139.3	142.4	141.3	142.5
양고기	NZD/100 kg	325	379.4	347.4	348.5	347.2	355.5
버터	USD/100 kg	145	139.2	146	148.6	149.6	151.6
치즈	USD/100 kg	188	187.7	191.1	198.6	202.5	209
탈지분유	USD/100 kg	159	173.3	173.4	174.1	176.6	177.2
전지분유	USD/100 kg	167	175.2	177.1	181.6	186	187.4
카세인	USD/100 kg	434	359.6	411.6	436.5	435.1	433

자료: OECD Agricultural Outlook 2004-2013, July 2004.

4.3. 설탕가격 강세 지속

설탕 시장은 본질적으로 약세를 보여 왔으며 전세계 설탕 소비는 연평균 1.8% 씩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은 가격상승 예상되는 대부분 시기 때마다 소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재고비율은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준이다. 세계 명목가격은 전망기간 동안 7~9 cents/lb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실질가격 하락세는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4.4. 축산·낙농제품 가격 상승세 예상

세계 치즈 명목가격은 상대적으로 큰 폭의 소비 증대와 치즈, 전지분유 수입증가 그리고 달러화 약세의 영향을 받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우병 발병 초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쇠고기 가격은 주기적 패턴을 반복하며 2008년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돼지고기 가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기적 패턴을 보일 전망이다. 명목으로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금육 가격은 비교적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나 양고기 가격의 경우 뉴질랜드와 호주의 수출공급량 감소로 과거 수준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5. 정책반영에 따른 가격변화 전망

4.5.1. 버터와 탈지분유 국제가격차

생산운영제도(생산쿼터제 등), 국경보호조치(TRQ 등)와 같은 일부 국내 및 무역 정책은 직·간접적으로 생산자 가격 하락 위험을 축소시키는 등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 그림 1, 2와 표 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캐나다, EU 그리고 미국 등 주요 4대 국가의 경우 세계 버터 가격과 자국내 가격간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97년 일본은 세계 가격보다 약 4배 높은 가격을 보였으며 전망기간 내내 같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같은 경향으로 캐나다는 세계 가격 보다 2배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반면 EU와 미국은 전망기간 기말년도 기준으로 세계가격의 75%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표 9 주요국별 버터 및 탈지분유 국제 가격차

단위: %

버터	EU	캐나다	미국	일본
1997	70	90	45	360
2003	111	192	80	501
2005	94	189	93	475
2008	65	199	99	461
2010	71	205	90	458
2013	79	219	81	442
탈지분유	EU	캐나다	미국	일본
1997	12	101	44	174
2003	11	112	10	172
2005	9	120	9	168
2008	9	122	10	164
2010	8	134	9	158
2013	6	219	12	151

자료: OECD Agricultural Outlook 2004-2013, July 2004.

그림 2와 같이 4개 국가의 탈지분유 가격은 버터와 달리 생산자가격 보호 장치가 미미하기 때문에 적은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캐나다는 전망 기간동안 가격차이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미국과 EU의 가격차이는 보합세 내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5.2. 설탕과 쌀 국제가격차

설탕의 국내외 가격차는 1997년과 비교할 때 2013년에는 모든 국가에서 큰 폭으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일본의 경우 약간의 변동기간을 거치면서 2013년 가격차이는 650% 이상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미국과 EU의 가격차이의 경우도 일본보다는 작지만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면서 확대되어 약 170~180% 수준의 가격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표 10 주요국별 설탕 및 쌀 세계 가격차

단위: %

설탕	EU	미 국	일 본
1997	103	102	422
2003	224	230	781
2005	152	142	563
2008	244	198	792
2010	162	153	628
2013	172	189	652
쌀	한 국	일 본	-
1997	372	703	-
2003	789	962	-
2005	650	799	-
2008	610	638	-
2010	612	599	-
2013	618	543	-

자료: OECD Agricultural Outlook 2004-2013, July 2004.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 쌀 시장의 가격차이는 시간 경과에 따라 차이는 점차 좁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세계 가격과 약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일본은 이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자료: OECD
(이병훈 shopper@krei.re.kr 02-3299-42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